

사무엘하 4. ‘이스보셋’의 죽음 (삼하 4 장 1-12 절)

들어가기 :

참고: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..

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슬퍼함 ->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됨 :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10 지파를 모아 이스라엘을 건국 ->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투 : 아사헬의 죽음 -> 다윗의 기다림 : 사울의 집은 쇠하고 다윗의 집은 강해짐 ->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불화 (사울의 첩 리스바 때문) : 아브넬의 망명과 요압의 무모한 복수 -> 다윗의 슬퍼함과 아브넬을 위한 장례식

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‘요압’에 의해 죽임은 당한 ‘아브넬’의 소식이 ‘이스보셋’과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‘이스보셋’의 정권이 급격하게 흔들리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. 특별히 이때 ‘이스보셋’의 두 장군 ‘바아나’와 ‘레갑’은 ‘이스보셋’을 죽이고, 그의 머리를 잘라 들고 ‘다윗’을 찾아갔습니다. 그러나 ‘다윗’은 이들의 행위를 악하게 여겨 저들을 처형하고, ‘이스보셋’의 머리를 ‘아브넬’의 무덤에 장사하여 주었습니다.

1. ‘아브넬’의 죽음은 ‘이스보셋’ 을 무능력하게 하고, 그의 정권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. (1-3 절)

1) ‘아브넬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‘이스보셋’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? (1 절)

- ✧ ‘이스보셋’은 손의 맥이 풀리고,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!
- ✧ ‘이스보셋’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, ‘아브넬’을 통해 얻게 된 것!
 - 곧 ‘아브넬’의 힘과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이 ‘이스보셋’!
 - 그래서 ‘이스보셋’을 ‘아브넬의 허수아비’ 라고도 불렀음.
 -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‘아브넬’이 죽었으니,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절망스러웠을까?

시편 18 편 29-30 절에서 저자는 “주를 의지하면 적군 속에서 달려도 겁내지 않고, 담을 만나면 뛰어 넘게 될 것이라 노래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‘이스보셋’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, 돈과 사람, 인간적인 관계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
2) 이때 ‘이스보셋’의 옆에는 ‘바아나’와 ‘레갑’ 이란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. (2-3 절)

- ✧ 이들은 베냐민 족속, 브에롯 사람, ‘림몬’의 아들들.
- ✧ ‘브에롯’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시골 마을.
- ✧ 곧 거기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까지 되어 왕의 옆을 지켰으니 분명히 ‘아브넬’의 눈에 들어 상당한 출세를 했던 사람들.
- ✧ 그런데 저들은 매우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!
 - 이들은 지금껏 (7 년반) 섬기던 ‘이스보셋’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서자 쉽게 등을 돌리고 ‘이스보셋’을 죽이게 됨. (나중에 8 절에서 확인)
 -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갚으려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..

우리는 결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, 다시 형편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 때는 슬플 때나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2. ‘요나단’에게는 ‘므비보셋’이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. (4 절)

- ‘므비보셋’의 뜻은 ‘부끄러움을 없애 버리는 자’란 뜻.
 - ✧ 역대상 8장에 소개된 다른 이름은 ‘므립바아’로 ‘바알로 만족하는 자’라는 뜻.
 - ✧ 그런데 그가 다섯 살 때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됨.

- 그럼 여기서 성경이 이 ‘므비보셋’을 소개하는 이유?
 - ✧ ‘사울’의 집에 ‘이스보셋’을 대신할 그 다음 왕이 딱히 없었음을 암시하고자 한 것.
 - ✧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 왕가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?

 - ✧ 이후 ‘다윗’은 ‘요나단’과의 약속을 기억하며, 그의 아들 ‘므비보셋’을 가까이서 보살핌.

3. ‘이스보셋’은 ‘바나아’와 ‘레갑’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(5-8 절)

- 1) 5 절과 7 절을 주목: 저들이 ‘이스보셋’의 방에 들렸을 때, ‘이스보셋’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?
 - ✧ 5 절 = ‘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’. 7 절 = ‘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’

 - > 곧 ‘아브넬’이 죽고,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던 그때, ‘이스보셋’은 대낮에 (평안히? or 낙심해서 무기력함에 빠져?) 자고 있었다는 것!

 - ✧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?

 - ✧ 어쩌면 ‘이스보셋’은 ‘아브넬’이 죽자, 이제는 ‘바나아’와 ‘레갑’을 믿자! 하고 잠 들었다가 도리어 저들에게 어처구니없이 죽임을 당하는 비운을 맞은 것은 아닐까?
 -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결단하자!

- 2) 이때 ‘바나아’와 ‘레갑’은 ‘이스보셋’을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, 그의 머리를 자른 뒤, 즉시 ‘다윗’에게 달려 갔습니다. (7 절)
 - ✧ 특별히 이들은 밤을 새도록 쉬지 않고 ‘다윗’에게 달려갔다는 것!
 - ✧ 이는 저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인지를 잘 증명하는 행동이 아닐까?

참고로 시편 133 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되는 일 (동거하는 일)이 참 귀하다고 노래했는데, 이와 반대로 저들은 서로 연합하여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면서, 선행도 악행도 연합하면 다 배가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3) 저들이 ‘다윗’에게 도착하여 한 아침의 말을 주목! (8 절)

- ① ‘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!’
-> 그러나 저들은 ‘다윗’이 결코 ‘사울’과 그의 가족들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생각지 못했다는 것!
- ② **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**
-> 이는 마치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일로 포장하는 것!
-> 또한 자신들의 죄를 변호하며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도구인양 선포한 것!
-> 그로 인해 당연한 칭찬과 보상이 있음을 바랬다는 것!

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심령(마음의 동기부터)을 살피시고,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! 또한 오늘도 자신의 야욕이나 욕심은 감추고,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알고 늘 주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4. ‘다윗’은 ‘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저들을 처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. (9-12 절)

- 1) 9 절 -> ‘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’
✧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껏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!
✧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코 ‘바아나’나 ‘레갑’ 같은 악인을 통해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에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심을 은연중에 지적!
- 2) 이 후 ‘다윗’은 전에 ‘사울’의 죽음을 이용해 출세를 하려던 자를 처형시킨 일을 언급. (10 절)
- 3) ‘다윗’은 ‘이스보셋’을 의인이었다고 인정해 줌! (11 절)
✧ 상대적 의인..
✧ 또한 실제로도 ‘이스보셋’ 스스로 어떤 악행이나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.
- 그는 ‘아브넬’의 부추김에 따라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것..
- 4) ‘다윗’은 ‘바아나’와 ‘레갑’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후, ‘이스보셋’의 머리를 ‘아브넬’의 묘에 장사해 주었습니다. (12 절)

✚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?

✚ 중보기도 나눔.